



8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강운 작가 작업실에서 열린 '비엔날레와 차를' 지역작가 오픈 스튜디오에 참여한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왼쪽에서 세번째)와 강운 작가, 동료 화가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동료작가 작업실 방문은 자극이자 성찰”

‘비엔날레와 차를’...지역작가 첫 오픈 스튜디오 현장

화가의 작업실은 역시 흥미로웠다. 정선휘 작가는 “작업실을 오픈하는 건 전투에서 모든 전략을 공개해버리는 것과 같아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말이다.

지난 8일 저녁 8시, 광주시 동구 계림동 4층 건물 지하 강운 작가 작업실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정광희·최순임·정선휘·이기원·박일우씨 등 동료작가와 광주비엔날레 조인호 정책실장, 정혜연 전시팀장 등이다. 낯익은 얼굴도 보인다. 한달 전 취임한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이다.

150호 대형 그림과 밑작업을 하기 시작한 작품 등 강운 작가의 대표작이 걸려 있는 작업실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날은 광주비엔날레가 진행하는 ‘비엔날레와 차를’의 지역 작가 오픈 스튜디오 방문 프로젝트 첫번째 행사 날이었다.

사실, 작가들이 다른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친한 선·후배 동료 작업실을 찾기는 있지만 ‘오픈 스튜디오’라는 타이틀을 걸고 공식적으로 작업실을 공개하는 건 드물다.

오픈 스튜디오는 ‘비엔날레’라는 이름을 걸고 있기는 있지만 작가들의 모임에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논의돼 시작된 기획으로 비엔날레가 ‘동참’하는 형식을 취했다. 한달 전 취임한 김선정 대표는 “역대 예술감독들이 진행한 프로그램 가운데 의미있는 기획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중 하나가 지역 작가들이 꾸준히 만나는 ‘월례회’였다. 김 대표는 마리아 린드가 기획했던 ‘월례회’ 큐레이터 조승기 미테우그로 대표를 통해 두차례에 걸쳐 작가들을 만났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단발성 모임으로 그칠게 아니라 작가들의 스튜디오를 찾아

광주비엔날레 대표·작가들

화가 강운 대인동 작업실 찾아

작품·미술계·비엔날레 의견 나누

월 1회 정례회·참여 방법 등 논의

지역 미술계 담론의 장 기대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지역 미술관, 비엔날레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왔고 현실화 된 게 이번의 ‘오픈스튜디오’ 프로젝트다. 무엇보다 비엔날레 최고 수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직접 작가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기획이다.

음료수와 캔맥주, 간단한 먹을 거리를 앞에 두고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엔 감자로 끼니를 때우며 옷통을 벗어제끼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작업해요. 오래만에 강 작가님 작업실을 찾았는데 다른 작가의 작업실을 찾은 건 자극을 받고 내 무기, 내 작품, 궁극적으로는 나에 대해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죠.”(정선휘)

오픈 스튜디오 주인공인 강 작가는 지금은 낯선 작업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젊은 시절, 작업실에 물도 나오지 않고 화장실도 없어 손님이 찾아오면 인근 우체국이나 농협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곤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함께 모여 작품에 대해 이야기 하고, 미술에 대

해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날 광주에서 이런 문화가 실종돼 버리고 개별화 되어버렸어요. 이런 자리 등이 매개체가 돼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가면 좋겠습니다. 꼭 거창하고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잖아요.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세대 간 소통의 시간도 갖고 생기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 작가는 “지역 미술계와 비엔날레가 지역 작가들의 잠재된 꿈을 부추기고 안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비엔날레에 대한 이야기들도 자연스레 나왔다. “비엔날레가 20년 넘게 계속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중요한 문화자산인 것만은 분명하죠. 시민들의 문화적 눈높이를 올려준 것도 사실이구요. 좋은 쪽으로 물꼬를 터주면 지역 작가들에게도, 지역 미술계에도 좋은 기운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정광희)

이날 현장에서는 또 다양한 전시를 기획할 젊은 독립 큐레이터의 필요성, 섣타화된 지역 미술계의 현실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또 한달에 한번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참여 작가 범위, 참여자 선정 방법 등 오픈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진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후 강 작가가 자신의 작업 세계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트레이드마크였던 유희에서 한지를 겹겹이 붙이는 독창적 작업으로 넘어가는 과정 등을 직접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이다. 생각보다 참여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오픈 스튜디오를 행사로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판’이 광주의 미술과 작가, 비엔날레, 더 나아가서는 예술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스스로 없이 오고가는 담론의 장이 되면 좋겠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위안부 아픔 위로 1인 마당극 ‘꽃할머니’ 공연

12일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원작 그림책 북 콘서트도

세계위안부의 날(8월14일)을 기념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공연이 열린다.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은 오는 12일 오후 7시 도서관 야외무대에서 1인 마당극 ‘꽃할머니’를 공연한다. ‘극단 문(門)’의 박영희 대표가 이끌어갈 이번 마당극의 원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꽃할머니’(권운덕 글·그림). 열세 살 때 일본군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은 심달연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책이다.

극단 ‘문’은 종이컵인형극 ‘제발다와 거인’, ‘망태할아버지가 온다’, 2인극 움직임 공연 ‘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노미숙씨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마당극 공연과 함께 원작인 ‘꽃할머니’ 그림책 이야기와 영상 상영 등 북 콘서트도 곁들여진다.

‘세계위안부의 날’은 2012년 한국정신대문제



그림책 ‘꽃할머니’

대책협의회에서 8월 14일 제정했다. 1991년 8월 14일은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다. 무료 관람, 문의 062-960-68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담양 해동주조장서 ‘예술로 통하다-술통 파티’

16일 음악공연·미디어 퍼포먼스

막걸리를 제조하던 시절의 향수를 품은 담양 해동주조장에서 오는 16일 ‘예술로 통하다-술통 파티(術通 파티)’가 낮 2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담양군과 담양군문화재단이 함께 주최하고 N뮤지크(대표 김숙희)가 주관해 클래식, 버스킹, 퓨전국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과 미디어아티스트 신도원 작가와 미디어퍼포먼스 로 정평이 난 펄프파마(임순중 작가)가 함께하는 ‘ONE EYE’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자리다.

또한, 해동주조장의 공간의 변화를 기록하고 생활사 자료의 조사와 연구 과정을 시각화한 아카이브형 전시 작품과 술에 담긴 추억의 이미지를 조형화시켜 주민들과 페인팅한 주민 참여형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기도 하다.

해동주조장 원재료 가공실에서는 ‘한국 모던시대와 커피’를 주제로 1920~30년대 커피문화를 한 자리에 모은 전시 및 시현 행사가 진행되며, 해동주조장 부지 내 근대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한옥에서는 남도 음식을 맛보고 막걸리 카테일을 제조·시음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과거 근로자들의 담소공간이자 숙소로 사용된 일본풍 한옥공간에서는 셀캐어터 체형 프로그램이, 옛 축사공간에서는 방문객들이 폐선 풍기를 활용한 공공미술 페인팅에 참여해 즐기는 현장진행형 프로그램이 방문객을 기다릴 예정이다.

한편 해동주조장 문화재생산업은 폐산업시설을 문화자원으로 재개발해 도시 내 침체된 구역에 사회적, 경제적 재생 노력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문의 061-380-3470. /담양=정재근기자 jrg@



국립남도국악원 11~13일 ‘여름방학 특별문화체험’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은 여름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11일부터 13일까지 국악과 가족이 함께하는 ‘2017 여름방학 특별문화체험’을 진행한다. <사진>

여름방학 특별문화체험은 전통예술과 진도의 문화자원을 연계해 국립남도국악원이 마련한 기획으로 올해 13회차를 맞이했다.

29가족 84명의 참가자들은 국악 공연 관람, 국

악(사물놀이, 민요, 소고춤 기초, 강강술래) 배우기, 진돗개 묘기관람, 문화탐방, 갯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2박3일 일정 중 첫날에는 공연관람, 강강술래 배우기 등이 펼쳐지며 둘째날에는 문화탐방과 국악배우기 코너가 마련돼 있다. 마지막 날에는 다양한 국악기를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문의 061-540-40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여름방학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7년 8월호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어촌의 여름을 즐긴다

-바지락 맛조개 갯벌 체험, 태안 병술만 마을
-달빛 아래 흰 상사화과 해변 산책, 위도 별금마을
-옛 당집과 신기한 해녀 체험, 울산 주전마을

보성에서의 여름휴가 활력 충전 100%

맛 맛 역사 자연 두루 갖춘 가족여행지로 각광

노홍준의 꿈의 여행

인도양에 떠있는 천혜의 섬나라, 세이셸

문화 축제

브런치 콘서트, 달콤한 인기
“음악, 나누면 더 행복하죠”
오디오 마니아 건축사 최경양 씨

여행이 만난 이 사람

송정동에 ‘문화와 정돈’ 퍼트리라는 협동조합 이공
트레이드를 터닝 포인트 삼은 KIA 1번 타자 이명기

60년 소리 인생 판소리 명창 안숙선

“소리 공부는 끝없어 매일 수련”

대한민국 식음업인회
대나무의 기 담긴 천년 명주의 맥 잇고, 세계의 술과 어깨 나란히
추성주 명인 양대수

동네 책방에 빠지다

책방별곡(2)

트렌드 따라잡기

마성의 1인 영상미디어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들어”

음식과 문화
목공예·떡살 전문가 이상국씨가
고안한 새로운 원형 떡살

정문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재향과 신작
현대 미술계의 두 여성 스타
바비라 크루거 Vs. 신디 셔먼

베트남의 대중문화 X파일상
김태호·나영석,
진행형 레전드 예능PD!

드론으로 본 세상
더위 가르며 바람 질주

국가어항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광·교통 중심 거점 어항
여수 울산항

남도 문화
구경
천세, 천만년, 타자가 사는
생명의 창경궁